

2015년 5월 4일 월요일 새벽 정리말씀

또 금주의 “혼인잔치” 말씀을 또 연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시대를 말씀합니다.

초청했어도 오지 못하면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을 꼭 부릅니다.

선생님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그렇지요?

“인간의 최대 삶의 도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선생이 이제까지 경험한 결론으로서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높은 사람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까?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는 그랬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 못 되었을 때는 높은 사람을 빨리 찾아서 모시고 사는 것도 나에게 큰 영광과 영화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나는 도전했습니다. 그 도전을 해서 하나님께 배우게 된 것입니다.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그것만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고, 주님만 찾고,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세상을 구원하라. 가서 나와 같이 그렇게 하자.”하셨습니다.

“딱 한 사람이면 족하다.”

구세주는 둘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일체된 자가 되고, 심정의 애인이 되고, 섭리의 애인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손을 대면 그 사람에게 큰 유익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써먹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으로 꼭 지옥 갈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놔두면 꼭 지옥 갑니다.

무엇 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back)!

자, 또 말씀하겠습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 이야기만 해야 혼인잔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해당됩니다.
“시간이 금이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큰소리칩니다. 대통령은 끝나고서도 죽을 때까지 큰소리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역이 큼니다. 주권, 사역, 권세, 능력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온 지구촌의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좇고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삼고, 지구상에 뽑는데 2000년 만에 뽑는데 이 시대에 나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담도 되고, 얼마나 감격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책임이 크고, 얼마나 밤잠이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뽑은 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하늘 앞에 오게 했으니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사의 새벽 말씀을 몇 마디 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는 대로, 만나는 대로 모두 오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본래 초청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안 오니까 놔두어 버리고, 할 수 없이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을 하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누구에게 시켰는데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시킵니다. 나를 시켰는데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세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20년 동안 기도 생활하면서 조건을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했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셨습니다. 실컷 외치게 했습니다. 실컷 말씀하게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가 원하면 실컷 주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문제에 의해 좌우됨

니다.

“하고 싶은 대로 외쳐라. 피곤하면 쉬고. 하고 싶은 대로 외쳐라. 외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나를 이야기해 주고 가르쳐 주니.”

하나님께 도전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데 도전해야 된다. 어느 선까지 왔느냐?”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 나를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가까이 있도록 한번 도전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도전해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의 어떤 것을 좇은 것보다 기쁘고 즐겁고, 벅슬이 되고 클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결혼하기 전에 신랑 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신부 택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서 안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원했던 것을 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줍니다. 받습니다. 그때 받아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반드시 줍니다. 자기 소원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저 사람이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뺏어서라도 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모든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후에 그것을 잘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가.

“그런데 계속적으로 잘하지를 못한다.” “계속 적으로는 못 하더라.”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크다는 것입니다.

“주기는 준다. 그런데 어떻게 귀하게 쓸 것이냐?”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섭리사 전체는 거의 본래 불렀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본래 불렀던 사람입니다. 종자가 다릅니다. 나는 본래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 때 기독교에서 딱 왔습니다. 와서 시대를 배우고 깨닫고 갑니다.

본래 오라고 한 사람들이 아니고 두 번째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감격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잘해야 됩니다.

하늘 앞에 운을 탔다는 것은 “선생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더 챙긴다. 더 신경 쓴다.” 이게 운을 탄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는 흐리멍덩할 때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든지 싫어할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 택해서 사올 때도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하고서 사오는데, 사람을 택할 때는 좀이나 오랫동안 고르고 또 고르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너희도 택했으니까 그 택한 것을 감당하고 잘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었기에 이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실기에 들어가니 앞으로 실기 가운데 열심히 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은 끝까지 다 배우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안 배운 사람은 뿌리가 얇아서 제대로 못 가고 결국 죽는 자가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